

先物市場의 기능이 확대되고 있다

OPEC(石油輸出國機構)의 석유시장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됨과 아울러 석유화학들이 무역전략의 일환으로 先物市場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석유가격 형성에 대한 선물시장의 영향력이 대폭증대, 석유선물거래는 호황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석유환경의 변화속에서 산유국들은 석유가격 결정권을 회복하려고 보다 현실적인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

정제 및 거래업자들의 마진이 소폭인데다 가격이 불안정한 상태여서 산유국 및 소비국들은 가격으로 인한 위험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先物市場을 이용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다. 뉴욕 상품거래소의 석유선물 거래량이 지난 해에 대폭 증대되어 산유국들의 가격결정권에 강력한 위협요인이 되어 왔다. 이에 따라 몇몇 산유국들은 선물시장에 참여할 경우 공시가격은 유명무실해지고 대신 선물시장가격으로 그들의 石油를 처분해야 하는 사태에 직면해야 하기 때문에 선물거래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켜 왔다. 어떤 산유국은 이미 선물시장의 영향 및 앞으로의 가능성에 대한 분석에 들어가기도 했다.

Petromin 및 Aramco관리들은 石油先物市場의 동태를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OPEC 산유국을 포함한 몇몇 산유국들은 원유, 난방유, 휘발유 등의 선물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NYMEX의 이용에 관해 상당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데, 이 중에는 쿠웨이트,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나이지리아, UAE, 사우디 아라비아 등이 포함되고 세계 최대 산유국인 소련도 참가할 가능성이 짙다. 한편 英國은 B NOC를 통해 무역계정을 신설하고 상품거래소 이용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산유국들은 공식적으로 先物市場 참여의지를 밝히지 않고 있다. 사우디의 Petromin, UAE의 ADNOC, 쿠웨이트의 KPC, 에콰도르의 CEPE, 베네수엘라의 Petroleos 등의 관리들은 NYMEX를 결코 이용하지 않을 것이며, 이에 대한 어떠한 계획도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 NOC, Statoil, Neste Oy(핀란드 국영석유), ENI 등 국영석유회사들은 이미 石油先物市場에 참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NYMEX를 이용하고 싶어하는 OPEC산유국들에게 부담을 주는 장애요인은 先物市場에 참여함으로써 油價구조의 근본을 뒤흔들어 놓게 되고, 결국 공시판매가격을 하회하는 수준에서 그들의 原油를 판매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장애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유국들은 결국 NYMEX를 이용함으로써 얻게되는 유익한 점도 적지 않다는 견해도 팽배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先物市場을 이용함으로써 그들의 이해에 부응시킬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등 많은 호혜를 거두어 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산유국들은 先物市場에서 「헤징」거래를 통해 原油 및 석유제품의 소비시장으로 수송하는 과정에서 발생될지도 모르는 위험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도 있으며 초과생산량을 처분할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초과산유량 판매에 대한 장점은 알제리, 사우디 아라비아, 쿠웨이트 등에게 호기심을 던져주고 있다. 이들은 국영 정유공장으로부터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판로를 절박하게 필요로 하고 있다.

산유국들이 NYMEX에 참가하여 선물거래를 적극 활용하게 되면 머지 않아 先物市場에서 거래되

는 물동량이 증가하게 되고 결국 가격을 더욱 안정시킬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산유국들이 계속 원유가격 통제의 기선을 잡을 것이라는 예측 때문에 기존의 선물시장 참가자들을 시장밖으로 구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NYMEX는 선물거래에 대한 외국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적극적인 유인정책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의도로 금년 3월말에 런던에 마야케팅 사무소를 신설할 예정이며 이

(表-1) 石油 선물거래 현황

거래소	油種	API	S 함유량	기 본 거래 로트	거래 개시 일
NYMEX*	WTI	40°	0.4%	1,000BL	83. 3. 30
CBOT**	LLS	35°	0.5%	1,000BL	83. 3. 30

註：*New York Mercantile Exchange

**Chicago Board of Trade

〈資料〉 P. Economist

(表-2) 스파트價格에 대한 선물거래 가격

(單位：¢ / gallon(제품), \$ / BBL(원유))

	난 방 유			휘 발 유			原 油		
	先 物	현 물	차 이	先 物	현 물	차 이	先 物	현 물	차 이
1984. 1	84.24	84.12	-0.12	75.20	75.12	-0.08	28.57	28.60	-0.03
2	100.37	102.50	-2.13	77.65	77.75	-0.10	29.79	29.60	0.19
3	78.58	77.75	0.83	80.40	80.25	0.15	29.91	30.00	0.09
4	80.47	81.50	-1.03	80.37	79.12	1.25	30.64	30.70	-0.06
5	83.04	82.25	0.79	78.00	77.75	0.25	30.66	30.60	0.06
6	81.61	80.75	0.86	74.92	75.75	-0.83	30.75	30.70	0.05
7	77.45	76.25	1.20	75.00	74.25	0.75	29.79	30.05	-0.29

〈資料〉 Platt's Oil Price Service, Wall Street Journal.

를 통해 선물거래에 대한 정보를 대외 거래업자들에게 전달하게 된다.

原油의 선물거래는 대량으로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해 NYMEX에서 거래된 계약량은 1983년 수준에 비해 469%나 증가한 180만 로트에 달했으며, 그중 1-1.5%의 물량이 실제로 인도되었다. WTI의 한 거래물량은 1,000배럴이다. 지난해 선물 거래된 原油, 난방유, 휘발유, 계약건수는 1983년보다 76.6%가 증가된 460만 로트였는데 원유의 경우 하루 평균 7,361로트, 다시 말해 700만배럴이 거래되었으며 제품의 하루 평균 계약건수는 8,366로트로 나타났다.

금년에 들어서도 原油의 先物市場 거래량은 계속 증가하여, 1월의 경우 총 17,512로트의 원유가 거래되었다. 1로트의 거래량은 1,000배럴이다.

이와 같이 선물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대했음에도 이것이 산유국들의 석유시장 가격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종합적으로 말해서 거래량이 계속 늘어날 경우 어느 한 산유국이 시장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일반론이다.

日本에서도 先物市場을 이용하려는 움직임이 강력하게 일고 있다. 정부와 직접 간접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日本 무역상사들은 선물시장이용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데, 미쓰이 상사의 경우 NYMEX에 고정인원을 배치했고 현지 자회사를 통해 선물거래를 하고 있다. 미쓰비시 상사도 휴스턴에 있는 Petro Diamond를 통해 앞으로 몇개월 내에 선물거래를 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

〈雙龍精油·주간石油에너지정보〉